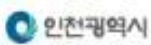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
		배포일자 2021년 4월 11일(일) 총 3 매		
담당 부서 스마트도시 담당관	담당 자 • 스마트도시조성팀장 박동열 ☎440-8926 • 담당자 이종성 ☎440-8927		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‘스마트도시 서비스’ 로 원도심 활성화 나서

- 남동구와 동구 최종 선정, 각 2억 원 지원 -

- ‘순찰형 스마트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’ 모바일앱·사물인터넷(IoT) 등 활용 -
- ‘AI 로봇 활용 스마트한 지역돌봄 시스템’ 어린이 맞춤형 콘텐츠 제공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스마트서비스 도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‘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’ 대상으로 남동구와 동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.

‘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’은 교통·환경·복지·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4차 산업 신기술(인공지능, 사물 인터넷, 빅데이터 등)과 접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을 통해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.

이번 공모에 총 6개의 지자체가 신청했고,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동구, 동구를 선정해 각 2억 원을 지원한다.

남동구는 하춘로 일원에 “순찰형 스마트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”을 구축해 주차비 결제·입출차 서비스·부정주차 단속에 모바일앱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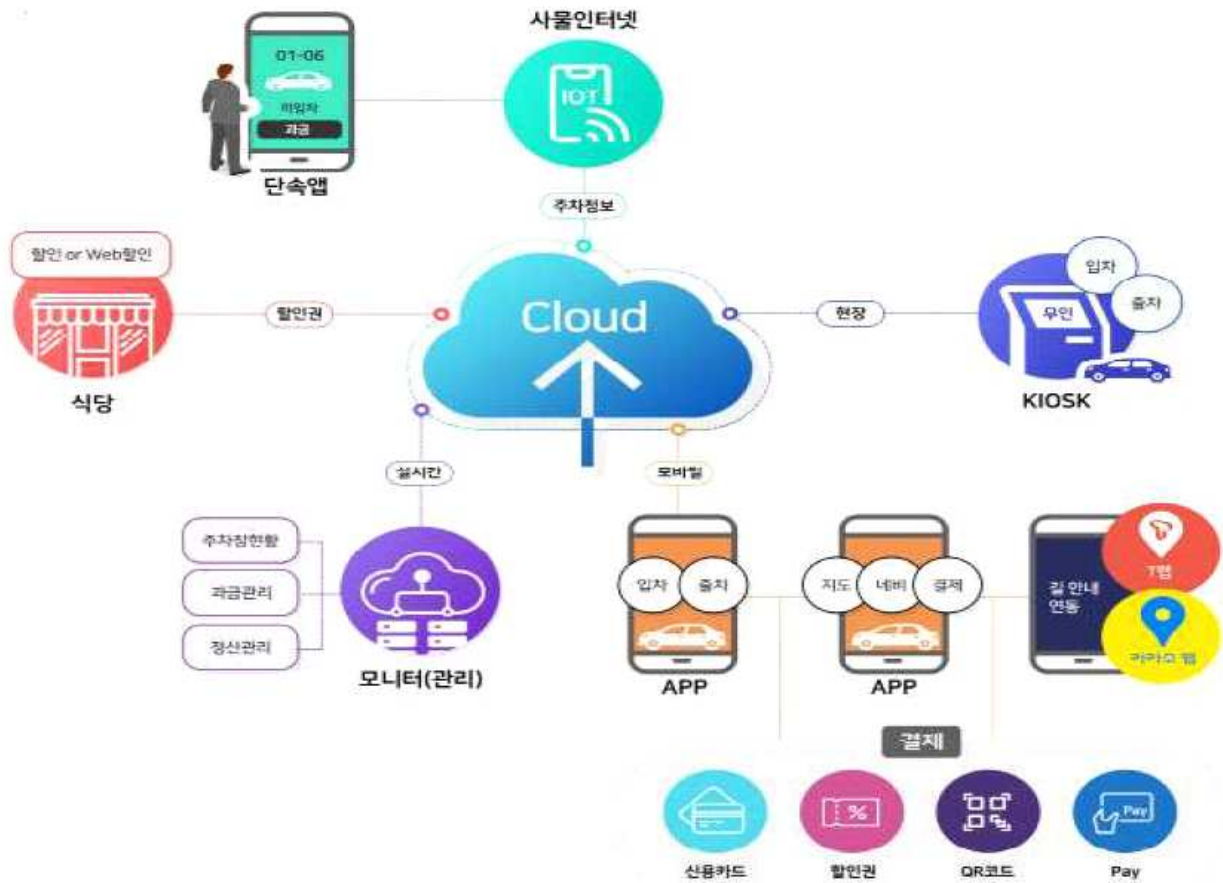
키오스크 및 사물인터넷(IoT)을 활용할 계획이다.

동구는 “AI 로봇을 통한 스마트한 지역돌봄 시스템”을 구축해 취약 계층 아동 등에 AI(인공지능) 로봇을 활용한 어린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.

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“본 사업으로 스마트사업에 대해 시와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확대하고 시민체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사진자료

남동구 『순찰형 스마트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』



동구 『AI 로봇을 통한 스마트한 지역돌봄 시스템』

